

논문접수일 : 2013.03.20

심사일 : 2013.04.04

게재확정일 : 2013.04.25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 연구

- 강릉의 역사인물 난설헌 허초희 작품을 중심으로 -

Study on Textile Pattern Design Development Method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Focus on works of NanSeolHeon Huh Cho-hee, a historic figure of Gangneung -

주저자 : 양순영

강릉원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Yang soon-you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ept. Fine Arts

교신저자 : 임혜숙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Im hye-sook

G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living Arts & Desing, Textile Art & Desing,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문화상품의 개념 및 특성
- 2.2. 강릉시 관광문화자원과 문화상품 현황

3. 난설헌 이미지의 산업화 전략

- 3.1. 난설헌 과 문화제
- 3.2. 친필작품 분석
- 3.3. 지역적 특성과 산업화 전략

4.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패턴디자인의 개발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대외홍보를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그 지역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상품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개발은 그 지역만의 특정한 역사·문화자원을 극대화시켜 지역의 이미지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릉의 역사인물 난설헌 허초희를 문화상품화 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시각이미지로 재구성하여 패턴디자인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강릉의 역사·문화자원의 개발 현황과 강릉예술창작인촌과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을 조사하여 난설헌에 대한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비중을 알아보았으며, 1999년부터 시작한 지역축제로서 난설헌 문화제를 조사·분석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였다. 또한 난설헌의 역사적 가치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활용면에 있어 매우 빈약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난설헌 작품의 무형의 이미지를 유형화하여 문화상품에 이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난설헌의 작품은 서예로 쓰여진 한시로 구성되어 있어 무형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지 전략 연구에 있어서 친필시를 바탕으로 calligraphy를 시각적 형태로 하는 패턴을 디자인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패턴디자인은 다른 지역의 문화상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고부

가가치의 창의적인 문화상품의 개발과 제작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역사문화자원, 문화상품, 난설헌 허초희, 패턴디자인, 강릉

Abstract

Local governments are searching for their own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actively using them to develop a variety of cultural products, as a specialized business aimed at establishment of regional identity and external promotions.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is a useful tool for strengthening regional image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maximizing the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designated a historic figure of Gangneung, NanSeolHeon Huh Cho-hee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to be used as a cultural product, and intends to explore methods of developing her works into pattern designs by reorganizing them through visual images.

As a first step of stud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development of Gangneung and its 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strategies and methods were researched to identify the utilization proportion of NanSeolHeon's works as cultural products. As a reference, the NanSeolHeon Cultural Festival, which began in 1999, was researched and analyzed to present a development method.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of developing patterns to be used as cultural products by developing intangible images to be tangible after analyzing the works of NanSeolHeon, knowing that her works had hardly been used, despite the historic value and weight.

Even though it was challenging to visualize the intangible images, since her works were Chinese poems (language) written in calligraphy, a method of developing pattern designs that use the calligraphy as a visual form was presented, based on her handwritten poems, as part of image strategy study.

The developed pattern designs will hopefully lead to development and creation of creative high value-added cultural products that will achieve differentiation from other regional cultural products and generate economic benefits.

Keywor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ultural products, NanSeolHeon Huh Cho-hee, pattern design, Gangneu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강릉은 다양한 역사 문화권을 가진 도시이다. 태백산맥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대관령권, 동해바다와 경포호가 있는 경포권, 소금강계곡을 따라 형성된 주문진관광권과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옥계관광권이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는 2005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인류문화 구전 및 문화유산결작에 등재되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은 이미 국제화 되어 있는 도시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은 타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상품의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역사문화자원을 관광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도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략이다.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복원하여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화상품의 개발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강릉에서 문화상품 개발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미지소재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허균의 홍길동,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 강릉시를 상징하는 소나무이미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릉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도 단 한번도 문화상품의 이미지에 사용된 적이 없는 난설헌 허초희의 작품을 활용하여 그 이미지를 문화상품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한다. 강릉 출신이면서도 한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여성인 난설헌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그가 친필로 쓴 작품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시각화된 패턴디자인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문화상품의 다양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강릉의 이미지 재고와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강릉의 역사 인물인 난설헌 허초희를 재조명하고 그의 친필작품의 정신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문화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패턴디자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난설헌의 친필작품을 중심으로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단계, 관광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화상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보고 강릉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살펴봄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미지 소재들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한 사례들을 조사한

다. 이를 통해서 강릉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는 문화상품의 종류와 활용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이미지 소재들을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소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문화상품의 소재이미지로 연구되지 않은 난설헌의 친필작품을 패턴디자인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차별화된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2단계, 난설헌의 이미지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으로써 난설헌과 생가터가 있는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난설헌의 삶과 예술정신을 되살리고자 시행되고 있는 난설헌 문화제와 관련 행사들을 살펴보면서 강릉의 문화자산에서 난설헌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비중과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난설헌의 작품분석에서는 친필작품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난설헌이 지은 시는 총 213수로 알려져 있지만 남아 있는 친필작품은 2점이기 때문에 친필글씨 『유선사(游仙詞)』의 열 번째 수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친필그림 『양간비금도(仰看飛禽圖)』에서 현재 난설헌 생가터와 그림 속 이미지와의 연결점을 찾아봄으로써 강릉고향을 그리워한 마음을 읽어 본다. 3단계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패턴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문화상품 개발에 적용할 난설헌의 정신적 사상과 예술혼이 깃든 친필작품 중에서 패턴디자인으로 개발할 이미지 소재를 친필서예작품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필로 쓴 서예 『유선사(游仙詞)』 열 번째 시 초서체를 Adobe photoshop 7.0 과 Adobe Illustrator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글자씩 모티브를 따서 calligraphy 형식으로 활용한 패턴을 제시해 봄으로써 패턴디자인으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상품의 개념 및 특성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최종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문화상품이란 제품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과정에서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기능과 조형예술의 산물인 미적형태의 유기적인 조화를 꾀하는 고객의 총체적 만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산물이다.(매일경제연구소,1997,p14)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학교 수업으로 점점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은 빼 놓을 수 없는 문화 여가활동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문화상품은 관광지를 기

넘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관련 축제를 열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상품의 변화된 특징들은 과거에는 상품의 기능과 경제성을 토대로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현재는 상품의 구매평가를 디자인, 심미성, 개성으로 선택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가 잘 보존되어야 하고 관련된 문화행사를 활발히 열어 문화적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2. 강릉시 관광문화자원과 문화상품 현황

문화를 산업화하고 상품화하는 경제적 차원의 전략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여 왔고 강릉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주말이 되면 동해안과 함께 강릉의 역사문화유적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릉의 문화자원은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초당마을, 난설헌 생가터, 시립박물관, 참소리박물관 등이다. 문화행사에 있어서 강릉단오제와 강릉ICCN세계무형문화축전은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강릉커피축제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하여 커피를 즐기는 마니아들의 방문과 함께 도시전역에서 커피향을 느끼게 한다.



[그림 1] 좌, 강릉단오제. 영신 행사길놀이 축제 (<http://www.danojefestival.or.kr/>). 우, 제3회 강릉커피축제 포스터 (<http://www.coffeefestival.net/default.asp>) 출처

또한 최근 현대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웰스케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난설헌생가터 주변의 숲 산책로, 대관령 옛길, 술향수목원은 웰스케어 관광문화로서도 손색이 없다. 강릉은 이처럼 지방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으로 활용한 최적지로서 불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건강을 충족시키고 있는 도시이다. 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다. 그리하여 강릉에서 제작하고 있는 문화상품으로 관광기념품의 개발 실정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 방법으로는 강릉시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성하는 사업 중 『강릉예술창작인촌』과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각이미지에서 찾아보았다.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강릉예술창작인촌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통공예 공방 조성사업」 응모에 채택되어 오죽헌 옆에 있던 옛 경포초교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이곳은 강릉시 공예품 전시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강릉예술창작인촌 전경과 내부

강릉예술창작인촌 입주 공방							
섬유 공방	8	도예 공방	3	가구, 목공예	3	그 외 기타	10

[표 1] 강릉예술창작인촌 입주 공방

강릉예술창작인촌에 입주한 공방은 24개 업체이며 그 중에 규방·자수·섬유·염색 공예를 하는 섬유 관련공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예공방, 가구·목공예 업체이다. 그 외에도 칠보공예, 닥종이공예, 수석·민속품, 바이올린악기, 비즈공예, 한지공예, 출판·미디어창작, 공예스쿨·오죽공예, 압화, 조개공예·컨츄리상품, 포크아트·포셀린, 쿡공예, 허브체험·커피체험으로 창작 및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고 있지만 강릉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미지는 초충도, 경포대, 소나무, 오죽 등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는 공방의 공예가들의 개인 작품이미지들이었다.

이어서 새로운 문양이미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 공모전은 강릉시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의 일환으로 매년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와 연결 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2년까지 4년 동안 강릉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https://tour.gangneung.go.kr/>)에서 발표한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의 입상작품을 대상으로 문양 활용 이

미지 및 사용재료를 조사해 보았다.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 사용재료 분포 (2009~2012년)					
사용 재료	2009	2010	2011	2012	계
섬유	7	7	6	4	24
목(木)	6	7	10	1	24
도자기	7	2	3	2	14
조개	1		2		3
허브	2	1	1		4
금속,철보	1	5	5	2	13
자연물	2	3			5
종이,한지	1	4	1	3	9
식품	3	3	2		8
재활용품		1	1		2

[표 2]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 사용재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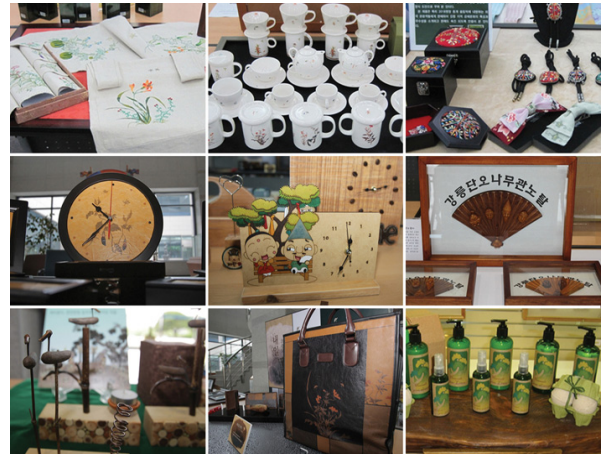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예품제작에 주로 사용한 재료들은 섬유재료와 목재료가 각 24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자기, 금속 순서로 활용되고 있다.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 문양 활용 이미지 분포 (2009~2012년)					
이미지	2009	2010	2011	2012	계
신사임당. 초충도	9	9	5	5	26
강릉단오제. 관노가면	2	4	6		15
소나무. 솔향강릉	12	6	3		21
경포호수	1				1
관동팔경	1				1
천연염색	1	2	1		4
선교장	1				1
대나무.오죽	4	2	5	1	12
강릉풍경	1			1	2
각종동물	3				3
꽃		3	6		9
강릉자수문양		1		2	3
커피		2	3		5
전통문양		2	2	1	5
진또배기		2	2		4
동계올림픽			2		2
기타소재		5	5	2	12

[표 3]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 문양 활용 이미지 분포

[표 3]은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에 수상한 공예품들이 활용한 문양이미지들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도 신사임당과 관련된 초충도이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결과로 보이고 상품 활용에 있어서 [그림 3]에 나타나듯이 텍스타일디자인 제품과 장신구, 도자기 전사, 인쇄, 스텐실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강릉 도시브랜드이미지인 솔향 강릉과 소나무이미지는 장식적인 효과뿐 아니라 식품 및 허브제품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이미지와 오죽현과 관련된 대나무 이미지들이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에 활용된 것들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강릉의 주변풍경, 꽃과 동물, 전통문양, 커피, 진또배기, 강릉자수문양 등이 주요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졌다. 또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는 이유로 동



[그림 3] 강릉문화자원을 활용한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품(https://tour.gangneung.go.kr 출처)

계올림픽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한 예도 보인다. 수상한 관광기념품들은 함, 반지, 차, 브로치, 명함케이스, 단추, 향 꽃이, 시계, 다기세트, 지갑, 벨트, 베게, 인형, 접시, 거울, 향수, 비누, 떡, 빵, 컵, 향아리, 수반, 주머니, 쿠션, 커피, 휴대폰 줄, 책갈피, 가방, 부채, 노트, 열쇠고리, 컵받침, 테이블 보, 수저, 골무, 귀걸이, 액자, 목걸이, 우산, 핀, 조명등, 차시, 메모꽂이, 테이블장식품, 연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제작되었으며 작품들의 일부는 관광기념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품 공예가들은 강릉예술창작인촌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공예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양활용에 있어서 난설현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위와 같이 강릉시에서 현재 관광기념품에 활용하는 이미지 및 재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문양들은 앞에서 거론했듯이 제품의 다양성과는 다르게 몇 가지로 편중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어 강릉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아직 한 번도 문화상품의 이미지로 활용하지 않은 난

설현의 친필작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턴디자인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3. 난설현 이미지의 산업화 전략

3.1. 난설현 과 문화제

난설현 허초희(1563~1589)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장도빈이 쓴 『조선역사담』에서 우리나라 보다 중국과 일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장도빈,1930.p606~607) 또한 장도빈 선생은 각 분야에서 조선의 10대 유명한 여성을 선정하였는데 조선의 10대 여성 중에서 시인으로써 선정된 인물이 난설현이다. 난설현은 조선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한 시인이며 동양 최고위라고 평가하였다.

1934년 1월호 『신가정(新家庭)』에서 ‘조선사상십대여성’(朝鮮史上十大女性)을 선정하는 투표를 하고 그 공천결과를 실었다.(허경진.2005.p9) 전체 10위 안에 든 여성의 득표수를 보면 신사임당이 1위, 난설현이 2위를 차지하여 난설현의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천재적 문학성을 발휘한 난설현을 추앙하기 위하여 1994년 허균·허난설현 선양사업회가 발족되었고 해마다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속적으로 난설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9월에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인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난설현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강릉초당마을 난설현 생가터 일원에는 『난설현문화제』가 난설현의 기일에 맞추어 봄에 열리고 있다. 문화제는 1999년부터 『허균.허난설현문화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의 취지²⁾는 주관하는 『교산·난설현선양사업회』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장정룡의 『허난설현 평전』에서도 난설현에 관련된 여성문화축제의 취지³⁾(장정룡,2007.p206)를 소개하

1) “성은 허요 명원 경변이오 호는 난설현이니 조선선조시대(서기 일천육백년경) 허엽의 딸이오 김정희의 처이다. 그 천재비상(天才非常)하여 한시의 작가로 일대에 유명하였나니 그 문사염려(文辭艷麗)하여 실로 입신(入神)의 묘를 가졌다. 그 시는 조선에서만 흰자(暄藉)할 뿐이 아니라 중국에까지 전파하여 내외국인의 찬상(讚賞)을 박(博)하였나니 여자 구속(酷嚴)한 조선시대에 이란 파천황(破天荒)의 여사가 남은 과연 기적 중의 기적이다.”

2) 교산.난설현선양회에서는 “봉건시대가 강요하는 질곡 속에서도 주옥같은 시를 남겨 동양 삼국에 그 명성을 떨쳤던 난설현 허초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그녀의 문학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다.”라고 문화제 취지를 소개한다.

(<http://www.hongkildong.or.kr/web2011/main.php>출처)

3) 여성문화축제를 “17세기 질곡의 삶을 넘어 시대를 향해 크게 외쳤던 자유정신의 구현자인 허난설현의 삶을 통해 여성의 자아의식을 강화하고, 한국적 여성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고 있다.

근래 4년 동안 진행한 『난설현문화제』행사는 『강릉시문화예술축제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럼(2009), 난설현 동상 제막식(2010), 한·독 여성작가 초대전(2011), 난설현 국제작가 초대전(2012)이 열렸고 그 외의 행사로 수공예체험, 백일장, 시낭송회, 들차회, 다례제, 사진전, 출판자료전시회, 등이 매년 열렸다. 문화제를 통해 학술적인 내용 외에 시각화된 작품을 보여준 것은 2011, 2012년 독일의 여성작가들과 한국의 여성작가들이 초대되어 난설현의 삶과 문학정신을 소재로 미술작품으로 표현하여 생가터에 설치함으로써 문화제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난설현 국제작가초대전』에서는 난설현의 시를 번역한 calligraphy를 선보이기도 하고 난설현의 시를 작곡한 음원을 들려주고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는 등 다양성을 더한 전시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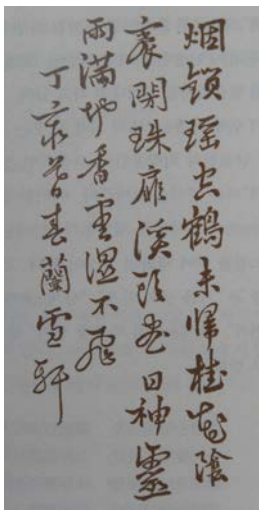
[그림 4] 좌, 2011 난설현문화제 『한·독 여성작가 초대전』 윤석남. 나무에 혼합재료. 난설현 생가터 설치. 우, 2012 난설현문화제 『난설현 국제작가전』 카타리나 피퍼. 칼리그래피. 난설현 생가터 설치.

이처럼 문화제의 활성화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 콘텐츠개발이 그 가치를 소중히 찾아 나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다만 『난설현문화제』에서만 보더라도 문화상품 개발이 관광콘텐츠개발과 학술을 중심으로 국한된 점을 보아 다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2년 동안 시각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초대전을 열은 것도 다양성을 보여준 것이지만 문화제 행사기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하여 난설현의 작품에서 시각적 요소를 개발하여 상품개발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3.2. 친필작품 분석

강릉시에서는 2000년도에 난설현을 비롯한 ‘허씨5문장가의 한시 국역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난설현이 남긴 213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강릉시,2000) 213수의 난설현 시 중에서 유일하게 친필서예로 남겨 개최되었다.”라고 소개한다.

진 시는 87수로 이루어진 『유선사(游仙詞)』의 열 번째 작품이다. 『유선사』는 이상세계의 동경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아름답고 황홀한 신선세계를 그린 시이다. 난설현은 여성으로서 『유선사』를 창작한 유일한 작가이며 일찍이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유선사를 쓴 여성작가는 없었다고 한다. '유선'은 전통적인 시제로서 속세를 벗어나 신선세계에 노니는 것인데, 도교에서 수련으로 득도하여 장생(長生)과 선인(仙人)이 된 신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유선사(游仙詞)』를 보면 그가 추구한 선계의 내용은 선인 교유(仙人交遊), 선인칭송(仙人稱頌),仙境동경(仙境憧憬),仙境찬양(仙境讚揚)으로 나눌 수 있다.(장정룡, 2007.p163.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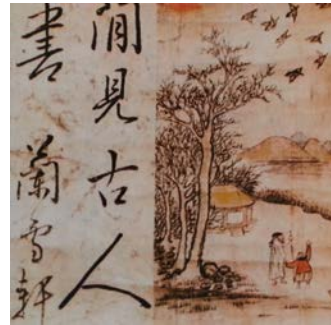
[그림 5] 난설현친필시 「유선사」 1587

(烟鎖瑤空鶴未歸), (桂花陰裏閉珠扉),
(溪頭盡日神靈雨), (滿地香雲濕不飛).
“하늘에 안개 끼고 학은 돌아오지 않고,
계수나무 꽃 그늘 속 사립문 닫혔네.
시냇가에 종일토록 신령스런 비 내려,
땅가득 향기어린 구름 젖어 날지 못하네.”
(장정룡, 양언석, 2000.p234.)

계수나무, 신령스런 비와 같은 표현은 그가 이상을 꿈꾸면서 선계에서 노닐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친필 초서체의 형태에서 보면 난설현만의 고유한 특징서체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초서체로 쓴 그녀의 서체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반영하고 있다. 초서체는 붓으로 쓴 필기체의 의미로 불규칙적인 활자 모양으로 서양미술사에서 추상표현주의적인 표현으로 활자의 굴곡이 물 흐르는 것과 같은 특징의 서체이다. 이것은 난설현이 추구하는 이상향과 자유로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난설현의 친필로 확인 할 수 있는 회화 『양간비금도(仰看飛禽圖)』 [그림 6] 4) 은 22.5×22.5cm 규격의 지본수묵담채로 인물과 풍경이 어우러진 것으로 난설

현이 남긴 유일한 그림이다.(장정룡, 2007.p43) 그림에서 묘사된 풍경은 3구루의 수목이 일렬로 뒤쪽으로 점차 멀어져 가는 형태, 작은 초가집, 초가집 뒤편에 있는 대나무, 초가집 오른쪽으로 호수가 펼쳐지고 멀리



[그림 6] 허난설현의 『양간비금도(仰看飛禽圖)』

리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는 8마리의 새들이 날아들고 있으며 그 새들 아래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다. 인물은 지팡이를 짚은 도사와 날아가는 새를 향해 고개를 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이원혜의 『조선의 시인 허난설현의 그림』에서

“실경적(實景的) 요소를 농후하게 지니면서도 그의 시세계처럼 이루지 못한 꿈의 세계, 이상향, 동경 등을 다루고 있다. 난설현의 분신과 같은 새, 꿈을 실현하는 매개물로서 피안세계를 지향하는 절대적인 새, 이러한 새들을 몸을 다해 우러러보는 그림 속 어린아이의 뒷모습은 바로 난설현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려진 것일 수도 있음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이원혜, 2005.p346.348)

라고 그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홍선표는 『조선시대회화사』에서

“조선 초기의 산수화는 사대부들의 삶의 궁극적 가치와 이상의 실현을 위한 충족적 공간으로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 경관은 이상화된 상상경이나 고전화된 명승들이 대부분이었다.”(홍선표, 1999, pp216~221)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양간비금도』는 그 시대의 화풍들과 사상이 접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설현의 그림은 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림 전체를 관찰하여 보면 그 시대를 산 여성으로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도사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아이는 난설현 자신의 행복했던 어린시절을 투영한 모습으로 읽혀진다. 어렸을 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난설현은 자신의 고향풍경을 떠올리며 그렸을 것이다. 그림 전체의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초당마을과 비교해 볼 때 생가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생가터 흙담을 둘러싼 대나무, 경포호수, 멀리 병풍처럼 둘러싼 대관령, 호수의 물줄기를 따라 모여드는 철새 등을 볼 때 『양간비금도(仰看飛禽圖)』에서 상징하는 부분들과 공통점을 보여준다. 현재의 불행

4) (허강(許穰)선생 소장, 문화재 등록 제40호)

에서 벗어나 행복한 어린시절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난설헌은 이처럼 유일하게 남긴 그림에서 해석해 보듯이 유년시절의 그리움과 이상향을 찾아 자유로운 삶을 찾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

3.3. 지역적 특성과 산업화 전략

난설헌이 어린시절을 보낸 강릉의 지역적 특성은 난설헌의 시 『주지사』 5(장정룡, 2007, p18) 에서 그 주변 풍경을 읽어 볼 수 있다. 난설헌이 그리워했던 난설헌 생가터 주변은 바다, 호수, 숲이 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관광지로서의 지리적 여건과 경관으로는 강릉은 물론 동해안 제일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7] 위.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과 전시품
아래. 기념관 옆에 위치한 전통차 전시장 내부

더욱이 강릉은 허균·허난설헌기념관 주변과 경포습지 부근으로 생태공원화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층 난설헌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에는 난설헌의 생애와 학술적 의미를 알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으나 관광객들에게 기념이 될 문화상품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허난설헌기념공원 내에는 관광객들에게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찻잔과 관련된 다도 전시장을 마련해 놓았다. 차 문화는 난설헌 기일에 다례제를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전통가옥으로 건립되어 강릉여성 다도회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난설헌 기념공원 내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해보더라도 [그림 7]의 전시작품에서 보듯이 학술적 의미 외에 친필작품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된 판매상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난설헌 생가터 기념공원 내에 있는 난설헌기념관과 찻방, 차전시장 조차도 난설헌과 관련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광

5) “옛 길가에 초가집 지어 날마다 큰 강줄기 보고 살았네.”
“집은 강릉 땅 들 쌓인 갯가에 있어, 문 앞의 강물에 비단옷 빨았어요.”

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친필서예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해야만 할 실정이다. 여기에서 개발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차 문화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그 이유는 난설헌 생가터 내에는 항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찻방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설헌의 삶이 바탕이 된 친필작품을 활용하여 다도에 사용되는 찻상 보, 찻잔 받침, 덮개, 차 주머니, 방석, 쿠션, 앞치마, 다기의 문양 등에 난설헌의 이미지를 넣는 상품은 일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패턴이미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패턴화 된 이미지를 산업화된 패션, 액세서리, 인테리어, 생활용품, 펜시용품 등에 적용하여 제품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경제적 부와 관광활성화를 함께 꾀 할 수 있게 된다.

4.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패턴디자인의 개발 방안

문화상품개발은 지역자치단체가 관광증진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과제이다.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서 역사인물 난설헌은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 난설헌의 친필작품인 『유선사』 열 번째 작품인 초서체를 calligraphy형식으로 패턴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서체는 시각 기호로써 일정한 법칙을 둔 장식적 쓰기를 의미한다. 일차적으로 언어전달 뿐만 아니라 조형적 의미와 기능을 가짐으로써 디자인 및 회화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서체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균형, 아름다움, 조화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한국화가 이용노는 서예 속에 조형의 기본이 있



[그림 8] 좌, 2011 난설헌문화제 『한·독 여성작가 초대전』 베티나 쿤취. 우, 남희 펠켈 송. 칼리그래피 난설헌 생가터 설치.

다고 믿었으며 동양의 한문 서체모양에 착안하여 문자를 추상적으로 구성하여 한글과 한문이 갖는 조형성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양의 독특한 현대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8]은 난설현의 시 구절을 독일의 회화작가들이 표현한 calligraphy이다. 이 작품들은 2011년 난설현문화제에서 전시된 설치작품으로 서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그녀의 시를 활용한 작품들은 패턴디자인으로도 손색이 없는 calligraphy 형식을 띠게 된다.



[그림 9] 좌. 난설현 친필작품 『유선사』 이미지
우. 친필작품 『유선사』를 활용한 패턴이미지 예시

그리하여 [그림 9]와 같이 난설현의 친필시에서 상징하는 문자의 언어적 의미와 물 흐르는 듯한 자유로운 서체를 바탕으로 한 패턴디자인을 제시하려 한다. 좌측의 이미지는 원본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그림 10] 난설현 친필작품 『유선사』를 활용한 패턴 이미지 예시

Adobe Illustrator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글자씩 모티브를 따서 원본의 위치 그대로 재현해 본 것이다. 우측의 이미지는 원본의 글자를 활용하여 한자

한자 색상의 변형을 주고 공간에 재구성을 하여 그림 같은 『유선사』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회화적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calligraphy 형식으로 패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0]에서는 텍스트 타이 패턴디자인으로 활용 가능한 이미지를 재현해 보기 위해 Adobe photoshop 7.0에서 색상계열별로 배경이미지를 만들어 친필서체를 전개해 보았다. 또한 Adobe Illustrator 10에서 친필서체를 TONE on TONE 동일색상계열로 바꿔줌으로써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배경색상과 배치함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그림 11] 훈민정음이미지 패턴디자인. 이상봉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은 한글과 동양적 미의 조형적 효과를 calligraphy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패션제품과 액세서리에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11] (이연진,2007)에서 보듯이 이상봉은 훈민정음의 내용을 훈민정음체 손글씨를 모티브로 하여 패턴디자인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글, 문화, 예술, 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이견만 디자이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조합하고 배열하는 패턴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패션상품에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calligraphy형식을 이용한 패턴디자인은 전통과 역사가 반영된 것으로 적용범위가 넓다. 따라서 난설현의 친필시인 초서체를 calligraphy 형식으로 개발한 패턴디자인 [그림 10]은 다양한 재료에 활용되어 문화상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활용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곳은 텍스타일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본다. 문화상품으로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 가방, 모자, 지갑, 주머니, 쿠션, 방석, 찻상 보, 베게, 우산, 의류, 문구류 등의 실용성 위주의 상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제품으로는 벽지, 커튼, 가구, 카펫, 침구류, 등에도 활용가능하다. 패턴디자인을 응용함에 있어서도 목가구나 도자기의 상감기법, 전사기법에도 응용할 수도 있고 칠보, 자개, 목공예 등에도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

화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릉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활용될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으로 강릉의 역사인물 중의 한 명인 난설현을 소재로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몇 가지 결과로 얻어 내었다. 첫째, 난설현은 신사임당과 버금가는 한국여성작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비해 그와 관련한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문화유산을 활용한 패턴이미지 개발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강릉시관광기념품공모전』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의 문양활용 이미지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난설현의 친필작품 소재와 관련된 문화상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난설현의 생애와 문화제를 통해서 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난설현을 알리는 것은 문화제 행사기간에만 보여 짐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웠다. 넷째, 난설현 기념관 및 기념공원 일대에는 공원화 정책 사업으로 관광객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난설현의 기념이 될 만한 문화상품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상품의 소재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난설현의 친필작품을 분석하여 텍스트타일 패턴디자인의 상품의 소재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난설현 이미지의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에서 친필작품을 분석하여 시각화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본 결과 그림인 『양간비금도(仰看飛禽圖)』에 비친 시각적 이미지는 새로운 패턴디자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패턴디자인으로 연구하기에는 난설현만의 특징을 찾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으로 초서체로 쓴 친필시 『유선사』에서는 calligraphy로 재구성하여 패턴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난설현의 친필시의 초서체이미지는 서체에서도 자유분방한 리듬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시 속에 담긴 의미에서도 난설현의 사상과 삶을 진실하게 표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패턴이미지로 제시한 calligraphy의 형태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형식과 조형성을 띤 패턴디자인이 개발된다면 강릉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문화상품 이미지인 초충도, 홍길동, 소나무, 경포대 와 같이 문화상품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념품개발 현황조사에서 섬유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더라도 텍스트타일 패턴디자인의 개발은 활용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공예가들에게도 새로운 소재의 문화상품 제작과 창의적인 문양 발굴의 모티프를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에 있어서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트렌드와 실용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이 우선시되어야만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 창출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대외 홍보 및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릉시 (2003). 『강릉의 문화유산』. 강릉시.
- 강릉시 (2009). 『강릉시 방문객 여행실태조사』. 강릉시.
- (사)허균, 허난설현선양사업회 발행 (2009). 『교산허균과 난설현 허초희 논문집』. 동녘출판사.
- 매일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디자인개발 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 박영주, 안상복, 이규대, 이성주, 최재식 (2009). 『강릉초당마을 전통문화 생태마을 가꾸기』. 진인진.
- 이연진 (2007). 「훈민정음 한글본 타이포그래피를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원혜 (2005). 조선의 시인 허난설현의 그림. 『교산허균과 난설현허초희 논문집(2009)』. 동녘출판사.
- 장도빈 (1930). 『조선역사담』. 경성 고려관.
- 장정룡 (2007). 『허난설현 평전 - 불꽃같이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 장정룡, 양언석 역 (2000). 『허씨 오문장가 한시국역집(許氏五文章家 漢詩國譯集)』. 강릉시.
- 전영숙 (2009). 『허난설현(許蘭雪軒)시에 나타난 연꽃 이미지 연구』. 동녘출판사.
- 허경진 (2005). 『허난설현의 생애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여성의 권리』. 제13회 영동문화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허난설현의 삶과 문학세계, 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허미자 (2007).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홍선표 (1999). 『조선시대회화사』. 문예출판사.
- <http://www.danojefestival.or.kr/>
- <http://www.coffeefestival.net/default.asp>
- <http://tour.gangneung.go.kr>
- <http://www.hongkildong.or.kr/web2011/board.php?board=nan&command=body&no=5&config=5>